플라톤에서 영혼과 우주의 문제

한 석 환*)

I

영혼의 문제를 논의하는 플라톤의 『파이돈』을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온다. "죽음 같은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물론이지요.' 심미아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는 것이네. 죽는다는 것은 신체가 영혼에서 풀려나 그 자체로 존재하고 영혼이 신체에서 풀려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네. 죽음이란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64c). 영혼이 신체의 존재와는 독립적인 그것만의 고유한 존재를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플라톤에서 영혼은 그 자체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신체와 결합하는 것과 무관한 존재와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영혼의 이러한 개념은 그리스 전통뿐만 아니라, 영혼을 공기(아낙시메네스) 또는 불(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했던 그 이전의 철학적 구상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 그러나 플라톤에서 영혼은 감각활동에서 신체를 사용할 때 감각적 변화의 세계로 이끌려 내려오긴 하지만, 감각적 변화의 전체 질서를 넘어서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나? 영혼이 무엇인가를 탐구함에 있어 시각이나 청각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감각을 통해서든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 신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감각의 사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네 — 신체에 의해서 가변적인 것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 헤매게 되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또 그런 유의 것들과 접하게 됨으로써 혼미해져서 어지럽게 된다고.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있어서 홀로 탐구하게 되면, 그것은 순수하고 영원하고 불멸적이고 불변적인 것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런 것들과 동족이 됨으로써 혼자 있게 되면, 그것은 그것들과 늘 함께 거주하고 …" (『파이돈』, 79cd).

---

*) 본교 철학과 교수

영혼과 '동족'(同族)을 이루는 영역은 감각적 우주가 아니라 고정성과 있음의 세계이다. 그것에 어울리는 삶은 지식을 통하여 이데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철학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것은 신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영위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런 점에서 철학은 죽음의 추구이며 죽음의 연습이다(『파이돈』, 64a, 80e 참조). 영혼이 이런 식으로 철학에 의해 풀려날 때까지 그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신체 속에 있다(『파이돈』, 82de 참조). 신체 속에서의 삶은 이처럼 영혼이 그것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며, 오직 철학만이 그것을 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그것의 참된 '목초지'는 불변적인 형상들의 영역에서만 발견된다(『파이드로스』, 247c-248b). 이 견해는 아주 분명히 신체를 인식하는 주체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에서만 문제되는 행동하는 인간에 대해 단지 수용자에 불과하며 도구일 뿐인 것으로 간주한다(『알키비아데스 상권』, 129e-130a 참조).

죽음 후의 영혼의 존속은 '대립자들은 대립자들에서 유래하며, 따라서 삶은 죽음에서 유래한다'는 관찰에 함축되어 있다(『파이돈』, 70c-72e). 이데아들의 상기는 영혼이 신체에 들어오기 이전 영혼의 존재를 요구한다(72e-76e). 그러므로 죽음은 영혼의 재생을 의미한다: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고 되살아남과 태어남이 죽음과 죽는 일로부터만 생길 수 있다면, 영혼은 죽음 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네"(77cd).

그밖에도 영혼은 신체 속에서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것 자체에 있어서 불사적이며 불멸적이다. 영혼은 신체처럼 해체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혼이 감각적 사물들하고가 아니라 이데아들과 동족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해체 불가능하거나 거의 해체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 이데아들과 닮았음을 의미한다(『파이돈』, 78b-80d). 뿐만 아니라 영혼은 그것의 본질이 삶 또는 생명을 함축하기 때문에 불사적이며, 따라서 그것의 본질적 대립자, 죽음을 배척한다(95d-106e).

『파이돈』에 전개된 이들 논변들은 '주제의 방대함과 인간의 무력함' 때문에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107ab). 전체 주제는 『고르기아스』(523a-526a), 『파이드로스』(248a-249b), 『국가』(Ⅹ, 614a-616b), 『티마이오스』(42bd), 『법률』(ⅩⅡ, 959b) 등에서 죽음 후의 영혼들의 여행과 심판, 영혼들 각

자의 처벌과 보상 — 영원한 또는 일시적인 — 을 묘사할 의도로 삽입된 생생하고 강렬한 신화에 의해 뚜렷이 해명된다. 영혼의 윤회 전생(*metempsychōsis*)은 『파이돈』의 입론 과정에서 인정된 바 있다. 영혼은 처벌로서 또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다수의 삶이 필연적이라면, 영혼이 범한 잘못과 철학함이 없이 지내면서 그것이 거두어들인 덕들에 따라 여러 동물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티마이오스』, 81d-82b). 이러한 윤회 전생은 영혼이 여러 몸들 속에 들어있는 동안 지혜에 있어서 얻거나 잃은 정도에 따라 일어난다(91d-92c).

『파이드로스』에서 영혼의 불사성은 **자동성**이라는 그것의 속성을 통해 확립된다: "모든 영혼은 불사적이네. 왜냐하면 항상 움직이는 것은 불사적이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고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은 움직이기를 멈추게 되면 사는 일 역시 멈추게 되기 때문이네. 스스로 움직이는 것(*to auto hauto kinoun*)만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기를 그치지 않으며, 그밖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 운동의 원천이며 단초가 되네. …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불사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자동성이 영혼의 본질이며 참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네. 밖으로부터 움직여지는 신체는 영혼이 없지만, 안으로부터 움직여지는 것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이네. 그런 것이 영혼의 본성이기 때문이네"(『파이드로스』, 245ce).

『법률』에서 영혼의 존재는 세계 속에서 감각적 운동이 일어남을 통해 증명된다. 생명이 없는 사물들은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지며, 따라서 운동에 단초를 제공할 수 없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이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한 물체가 다른 한 물체를 움직이고 그 물체가 또 다른 물체를 움직일 경우에 이와 같은 물체 속에 어떤 운동의 제일요소라도 들어있을까요?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어떻게 운동의 시원(始原)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을 움직이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을 움직여 모든 물체가 이와 같이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러한 운동의 시발[1]은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겠습니까?"(Ⅹ, 894e-895a). 정의상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으로서의, 그리

1) '운동의 시발'(*archē tēs kinēseōs*)이라는 표현은 뒤에 가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운동인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자동적인 또는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과 관련한 플라톤의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제8권에 나오는 제일동자의 존재에 대한 논변들의 바탕을 이룬다.

고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른 운동의 근원으로서의 영혼의 이러한 개념은 『법률』에서 상당히 길게 전개된다(Ⅹ, 894b-897c).

한편 영혼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불사적이며 머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성적인 부분(*to logistikon*), 가슴에 위치한 기개적인 부분(*to thymoeides*), 복부에 위치한 정욕적인 부분(*to epithymētikon*)이 그것이다(『국가』, Ⅳ, 435b-442a; 『티마이오스』, 69c-70a, 89e-90a). 첫 번째 유형은 불사적이고, 다른 두 유형은 가사적이다. 식물들에는 오직 세 번째 부류의 것만이 현전한다(『티마이오스』, 77ab). 두 번째 부류는 짐승들에 현전한다(『국가』, Ⅳ, 441b). 그것들 상호간의 구별은 그 반대되는 운동들에 의해 드러난다(『국가』, Ⅳ, 436ac). 욕망들은 이성이 금하는 것을 욕구할 수 있으며,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정욕적 욕망이 소동을 일으키면 성을 낼 수도 있다(437b-441c). 그러므로 각 욕망은 나머지 것들, 즉 이성과 기개 중 어느 하나나 둘 모두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그것들이 세 가지 실로 판명하게 구별되는 영혼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이상의 플라톤의 논변들은 지성적 영혼의 본성이 불사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논변들은 영혼의 불사성을 결정적으로 확립하지는 못한다. 그 과제는 우주와 그 여러 부분의 구성에 대한 보다 더 일반적인 취급에 맡겨진다.

Ⅱ

가시적 우주에 대한 플라톤의 묘사는 감각적 세계의 인식을 의견의 영역에 배정했던 엘레아학파의 일반적 입장과 일치한다. 가시적 우주에 대한 그의 구상은 전체 우주를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했던 그리스 철학의 전통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성적이고 섭리적인 원인을 갖는 것으로 묘사한다(『티마이오스』, 30b). 그러므로 감각적 우주는 그런 것인 한에 있어서 그것 자신의 고유한 영혼을 갖는다.

가시적 세계와 관련하여 개연성 이상의 것이 확보될 수 없는 이유는 그 가시적 세계가 변화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가시적 세계는 항상 변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지식의 대상에서 요구되는 불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

은 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견에 의해서만 도달된다. 감각적 우주는 이데아나 수학적인 것들과 같이 엄밀하게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의견만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과정들을 탐구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그의 연구의 결과들에 있어서 가능한 한 높은 개연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기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들 가운데 하나인 『티마이오스』에 표명되어 있다. 그 견해들은 그렇게 말고는 달리 알려진 바가 없는 아마도 허구적일 로크리스(Lokris)의 티마이오스의 입을 통해 발표된다. 하지만 이 이론은 그 안에서 존재의 세계가 생성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고 지식은 이데아들에 기초해 있는 바 플라톤 자신의 철학의 기본 배경과 잘 어울린다. 결국 감각적 자연의 철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플라톤 자신의 일체를 포함하는 철학적 이론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소개된다.

세계를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플라톤의 설명이 그 이전의 그리스 철학의 전통과 충분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생명 부여를 선견지명이 있는 원인의 작업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플라톤은 발생 또는 생성의 함축들을 끌어냄으로써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다: "생성되는 모든 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인 없이는 생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티마이오스』, 28a)[2] 이것은 근대에 와서 인과율이라 불리게 될 명제의 최초의 기록인 것 같다. 인과율은 즉시 우리를 가시적인 우주를 제작하는 원인을 탐구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일은 그 원인을 발견하며 그것의 본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과 관련하여 인간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수단들을 능가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우주의 창조자와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은 힘든 일이거니와, 설사 우리가 그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28c). 그는 데미우르고스라 불리는데, 그것은 어원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일꾼"을 의미했으며 수작업의 숙련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던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 세계의 제작에 관하여 한 가지 점이 주저 없이 받아

2) 『티마이오스』, 28c; 『필레보스』, 26e 참조.

들여질 수 있다. 즉 감각적 세계의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의 선(善)함은 그 세계가 이데아들에 따라 만들어질 것을 요구한다(28c-29a). 선은 데미우르고스의 필연적 특성으로 상정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그를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도 적절하지도 않겠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탐구에 어울리는 바 개연적 추론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것도 분명히 요구되지 않는다(29c).

이렇게 데미우르고스의 선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확립된 것은 감각적 우주 안에 있는 사물들이 이데아들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들이 일부 특수한 사물들과 관련하여 보여주었던 것이다. 중기 대화편들은 이데아들을 그 원형으로 삼고 있었다. 그 이론은 이제 전체 가시적 세계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각적 우주의 데미우르고스는 그것을 이데아들의 모형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의 선함은 세계를 모든 원형들 중 최선의 것, 즉 이데아들에 따라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도대체 세계 제작의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선하며, 선한 이는 어떤 것에든 질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질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한 자기 자신과 비슷한 상태에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참된 의미에 있어서 창조와 세계의 시원입니다"(29e-30a). 우주 제작의 동기는 그 자신의 선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미우르고스의 바람이다. 그는 질투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물들이 최대한으로 선하게 되기를, 즉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 자신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닮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데미우르고스가 세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선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작업을 해야 하는 물질의 한계들에 예속되어 있다. 그는 그의 장인적(匠人的) 솜씨가 관계하는 바 물질들을 무(無)로부터 낳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창조자가 아니다. 그런 물질은 이미 그 앞에 있으며, 그는 그것에 결정된 질서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가시적인 모든 것을 그가 받아서는 그것을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질서 있는 상태가 무질서한 상태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30a). 데미우르고스의 작업은 이미 거기에 있던, 무질서 속에 놓여 있는 다량의 물질 위에서 수행된다. 그의 일은 질서와 아름다움을 그러한 혼돈에 집어넣는 것이다.

우주 안에 영혼과 지성의 현전을 가리키고, 그리하여 생명이 부여되어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전 우주의 개념을 낳는 것은 바로 질서와 아름다움이다. 데미우르고스

는 "비지성적인 피조물들 중 그 어떤 것도 지성을 지닌 것보다 전체로서 볼 때 결코 더 훌륭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성은 영혼이 빠진 것들에는 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우주를 만들 때, 지성을 영혼 안에, 영혼은 몸통 안에 함께 있게 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본성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작품의 창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30b). 이상이 우주는 생명이 부여된 어떤 것이라는 그리스의 전통적 견해에 대한 플라톤의 정당화이다.

한편 세계의 몸은 가시적이고 만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들로 불과 흙을 요구한다. 이것들 간의 가장 아름다운 결합은 수학적 비례의 그것이다. 면(面)과는 달리 입체는 하나의 중항이 아니라 이중의 중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매개적 구성요소들, 공기와 물이 필수적이다.[3] 따라서 "신은 물과 공기를 불과 흙 사이의 중간에 놓고서, 그것들을 가능한 한 그것들이 서로에 대해 같은 비례 관계를 갖게 하여, 즉 공기와 물의 관계는 불이 공기에 대해 갖는 관계처럼 되게 하고, 물과 흙의 관계는 공기가 물에 대해 갖는 관계처럼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천구를 볼 수 있고 만져 알 수 있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숫자상으로 넷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로부터 우주의 몸이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비례 관계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러므로 친화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그것 자신과 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자 이외의 다른 어떤 손에 의해서도 해체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32bc). 이런 식으로 엠페도클레스의 네 가지 '뿌리들'은 감각적 우주의 네 가지 원초적 구성원소들로 수학적으로 정당화된다. 물론 그 추론이 개연성의 영역 외부에서 얻어지지는 않는다. 우주가 질서정연하다면, 그것은 기초적인 수학적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며, 이 구조에 네 가지 전통적인 기본적 구성요소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주에 있어서의 조화와 친화(*philia*)에 대한 기초가 세워진다. 이런 비례의 결속들은 너무도 강력하여 그것들의 원천적 제작자 이외의 그 어떤 누구도 그것들을 해체할 수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에 대해 가장 잘 어울리고 자연스런 형태는 구(球)의 형태이다: "그 자신 살아 있는 것으로서 자신 안에 모든 살아 있는 것을 포용하게 되

3) 이러한 이론의 (그리스) 수학적 배경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F.M. Cornford, *Plato's Cosmology* (London and New York, 1937), 45-52면 참조.

어 있는 것에는 가능한 모든 형태를 자신 안에 포용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작자〕는 그것〔우주〕을 … 가장 완벽한 형태이자 모든 형태들 중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구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닮은 것이 닮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33b). 구형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선택된 것은 모든 형태들 중에서 그것이 그것의 중심으로부터 그 극단들이 등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최고로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자기 자신 안에 다른 모든 형태들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몸에 적절한 형태는 그 자신 안에 다른 모든 살아있는 몸을 포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 구형에 딱 들어맞는 운동은 그것 자신의 한계들 안에서 원운동을 바꾸지 않는 것인데, 바로 이런 운동이 우주에 배정되었다는 것이다(34a). 우주는 이런 식의 하나뿐인 외로운 천구이지만, 그것의 탁월성 때문에 자기 자신과 어울려 지낼 수 있다. 세계 영혼이 그것의 몸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으며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는 그 밖의 다른 어떤 것과의 교제도 필요치 않다. 그것은 자족적인 신이다(34b).

하지만 물질적 원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세계 영혼의 구성 속에 들어간다. 플라톤에 따르면, 존재(*ousia*)와 동일성과 타자성이 세계 영혼의 본성, 기본적으로 이데아들의 불변적이고 불가분적인 특성과 물체들의 가분적인 특성이 혼합된 본성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물질적 본성의 어떤 것은 심지어 세계 영혼의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세계 영혼은 물체들에 어울리는 가분적 특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그것의 구성이 수학적 도형들과 비례들의 면에서 상당히 길게 묘사된다(35b-36e). 세계 영혼은 본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런 한에 있어서 그것은 연장된 것의 영역에 속한다. 세계 영혼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성된 것으로 묘사된다(34c, 37ac). 세계 영혼은 사실상 해체될 수 없는 것일 텐데, 그 이유는 그것의 제작자의 의지 안에서 그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것들처럼(41a) 그것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합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본성은 사실 불사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불사성은 데미우르고스의 의지에 의해서만 사실로 확립되는 것 같이 보인다. 『파이드로스』(245c-246a)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운동 중에 있다. 그래서 감각적 질서와 비교해서 그것은

본성상 독립하여 존재하며 불사적이다. 그러나 『티마이오스』는 불사성의 자연적 요청이 데미우르고스의 의지에 의해서만 현실적 사실로 보증됨을 나타낸다.

그것에 따라 우주가 구성된 바 원형은 이데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데미우르고스는 선하기 때문에, 그 원형의 그러한 자세를 가능한 한 많이 그의 작업에 부여하기를 바란다. 영원성은 본성상 이데아들에만 속해 있고 생성된 그 어떤 것과도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의 또 다른 유형, 즉 시간만이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그의 제작품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지속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속적 단일성의 충만 속에서 이데아들에 속하는 움직일 수 없는 영원성의 움직일 수 있는 상(像)이라는 것이다. 그런 단일성은 부분들 외부에 있는 부분들의 무한한 다수성 속에 지속을 펴는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만 감각적 세계 속에 모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영원성의 움직이는 모상(*eikōn*)을 만들 생각을 갖고서 천구에 질서를 잡아 줌과 동시에 단일성(*hen*) 속에 머물러 있는 영원의 모상, 수에 따라 진행되는 영구적인 모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chronos*)이라 부르는 것입니다"(37d). 따라서 시간은 데미우르고스 자신에 의해 우주와 함께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그것은 본성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제작자의 의지에 의해서 해체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 자체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명확히 플라톤에게 있어서 시간 — 수학적 연속에 따라 운동에 질서를 세우는 것 — 이 시초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운동들에 항상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가 그것을 제작할 때에만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자연학』, Ⅵ 1, 251b17-19)의 명시적인 증언인데, 그는 플라톤이 이런 면에서 다른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플라톤 혼자서 시간은 우주와 더불어 생겼다고 말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형이상학』, ⅩⅡ 6, 1071b32-33)는 레우키포스와 플라톤이 운동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한다. 만약 운동과 관련하여 플라톤의 가르침이 이런 점에서 레우키포스의 그것에 대응한다면, 그것은 플라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각적 사물들에 운동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실 플라톤의 명시적인 언명은 데미우르고스가 가시적인 모든 것을 "정지해 있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30a). 따라서 운동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데미우르고스가 제작한 것

은 수에 따른 운동의 질서였고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운동은 플라톤에 의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 데 비하여, 시간은 그렇게 간주되지 않았다. 시간은 데미우르고스가 이미 거기에 있고 운동 중에 있는 것으로 발견한 물질들로 질서잡힌 우주를 구성했을 때에만 시작한 지속의 한 유형이다. 운동의 질서잡혀 있음과 (따라서) 시간은 데미우르고스가 개입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 밖의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의 경우 우주적 시간에서의 질서는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이었다.

플라톤은 그의 일반적 설명 방식대로 시간에 관한 논의에서도 무엇을 논증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개연적인 설명들만 계속하여 제출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데아들의 지속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非)시간적이라는 그의 가르침이다. 이데아들의 존재와 본성은 전적으로 초시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다음 데미우르고스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여타의 살아있는 사물들을 만드는 일로 계속 나아간다. 그는 그것들 모두를 이데아의 모형을 본떠 만든다: "그[데미우르고스]는 이 남은 일을 그 본의 본성을 본떠서 완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살아 있는 것의 형상 안에 있는 종류들로 어떤 것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를 지성(*nous*)이 알아보는 대로, 그런 것들을 그 종류만큼 이것이 또한 갖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천상의 신들의 부류이고, 다른 한 종류는 날개가 있어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며, 셋째 것은 물 속에 사는 종류이고, 넷째 것은 걸어다니며 마른 땅에서 살고 있는 종류입니다"(39e-40a). 지구와 행성들과 항성들의 가시적인 드러남과는 별도로, 첫 번째 부류, 신들의 지식은 인간들의 획득 능력을 넘어서 있다. 그것들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거나 개연적인 증명들이 없긴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신화적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 신들은 불사적인 것들이지만 본성상 그런 게 아니라 데미우르고스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살아있는 사물들은 그것들이 가사적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데미우르고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보다 낮은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불사적이고 신적인 부분만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혼합의 상태에 있어서 보다 더 희박하다는 것을 제외하곤 세계 영혼과 동일한 구성원소들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불사적이고 신적인 부분은 가사적 본성과 혼합되기 위해 다른 신들에게 넘겨진다. 영혼들은 각각 맨 먼저 별에 배속되는데, 거기서 그것들은 모두 동등하게 우주의 본성과 우주의 운명들을 보게 된다. 그런 다음 그것들은 물체들에 이식된다. 바르게 산 사람은 이후로 그의 별로 돌아오게 되지만, 악하게 산 사람은 다음에는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며, 거기서도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 그의 비합리적 경향들을 극복하는 데 성공할 때까지 그의 부정한 행동들을 닮은 짐승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영혼이 왜 물체 속에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구상들, 즉 잘못들에 대한 처벌로 감옥 속에 있게 된다는 것과, 우주적 과정들과 일치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플라톤에 의해 결합된다.

감각적 물체들의 제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전히 개연적인 추론에만 따른 것이지만, 이미 살펴본 두 가지 것과는 다른 세 번째 유형의 것이 요구된다: "우리가 상정했던 한 가지는 가지적이고 항상 동일한 원형이었고, 두 번째 것은 생성된 것이고 가시적인, 그 원형의 모방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것이 있는데, … 그것은 설명이 어려우며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 그것은 모든 생성의 수용자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생성의 유모입니다"(48e-49a). 이 추론은 생성되는 사물들은 그것들이 생성될 때 그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들을 말하자면 돌보는 **수용자**(*hypodochē*)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특수한 이것'(*tode*)으로 간주되어야 할 안정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것'(*to toiouton*)으로 간주될 안정성만 갖고 있다. '특수한 이것'이라는 표현을 그것들이 그 속에 위치해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내버려둔다면 말이다. "우리가 계속하여 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 불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고 불러서는 안 되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도 '이것'으로 언급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러한 것'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나타나고 또 소멸하는 바의 것만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49d-50a). 예를 들어 금은 모든 종류의 모양과 형태를 취하는 동안 금으로 남아 있으며, 거기에 있는 것은 항상 금이다. 그 금은 '특수한 이것'으로 간주되며, 그것이 취하는 삼각형이나 다른 형태들은 '그러한 것'으로만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물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본성은 항상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

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들을 수용하는 동안 그것[자연]은 그것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결코 조금치도 벗어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건 또는 어떤 시점이건 그것 속으로 들어오는 사물들의 본성과 유사한 형상을 결코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것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으로부터 나가는 형상들은 놀랍고 불가해한 방식으로 그것들의 원형들을 본떠 만들어진 언제나 존재하는 것들(*ta onta aei*)의 모방물들입니다"(50bc).

'특수한 이것'과 구별되는 '그러한 것'의 개념이 명확히 이 추론에 전제되어 있다. 성질들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용어상의 아무런 구별 없이는 더 이상 '사물들'로 얘기되지 않는다. 플라톤은 사실상 생소한 낱말로서의 '성질'(*poiotēs*)이라는 용어를 『테아이테토스』에서 이미 도입했었다(182a). '뜨거운' 또는 '하얀'(『티마이오스』, 50a)과 같은 성질은 그것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 속에만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를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한다는 이론은 현재의 대목에서 아주 명료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플라톤의 목적은 이데아들의 상(像)들로서의 모든 감각적 사물들을 말하자면 성질들의 상태로 환원시키려는 것이다. 거울 속의 상들이나 수면 위의 반영들이 그것들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물체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수용자는 모든 부류의 감각적 사물들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있어서 **그 어떤 감각적 형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그것에서 향수들이 만들어지는 기본적 실체가 가능한 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듯이 말이다. 어떤 형상이든 밀고 들어갈 것이며, 따라서 다른 형상들의 수용과 충돌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자 자체는 감각적 형상들이 완전히 빠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이데아들의 다른 형상들이나 상들이 그것에 들어가고 그것을 떠남에 따라 계속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의 각 부분은 그 순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물 — 불, 물, 흙, 또는 공기, 그리고 그것들의 합성자들 — 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결코 그것 속으로 들어가는 사물들 중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들, 즉 그것 속으로 들어가는 사물들로 변하는 질료나 물질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저 그것들을 수용할 따름이다. 거울이 상들을 수용하고 수면이 반영들을 수용하듯이 말이다. 거울이 그것 자체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울의 표면은 다르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수용자는 결코

그 밖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 수용자만 '특수한 이것'이다. 그것이 수용하는 상들은 실체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한정하는 표현들과 더불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자는 항상 동일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그것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불가해한 방식이긴 하지만 가지적인 것에 참여하고 영원하며 불멸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성에 의해 인식되며 감각들에 의해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그것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 이데아들처럼 참된 지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된 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플라톤이 '서출적(庶出的) 추론'이라 부르는 것에 의해 알려진다. 그것은 전적으로 감각적 세계와 관련된 것이지 지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은 없다. 그것은 지성적 세계의 영원하고 불멸적인 측면들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그래서 지성의 대상 축에 든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 자체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가지적인 것으로 인간의 오성에 제시된 이데아가 아니다. 지성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다. 그것의 현전과 특성과 속성들에 관하여 감각적 우주의 요구조건들로부터 다만 추론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끝으로 공간과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동일하고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밖으로부터 그것 자체 안으로 어떤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고 그것 자체 밖으로 나가 어떤 다른 것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어떤 감각에 의해서든 지각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조는 지성에게만 부여된 부류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고, 그것과 유사한,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생성되는, 항상 운동 중에 있는, 장소 속에서 생성되었다가 다시 거기에서 소멸하는 또 다른 자연이 있는데, 이것은 감각을 동반하는 판단[의견]에 의해 파악됩니다. 그리고 제3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간이며, 영원하고 소멸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피조물들에 거처를 제공하며 감각을 동반하지 않는 일종의 서출적 이성에 의해 파악되며, 실재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노라면 우리는 마치 꿈을 꾸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장소(*topos*) 안에 있으며 어떤 공간(*chō-ra*)을 점유하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땅에도 하늘에도 있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말합니다"(51e-52b).

그러므로 공간은 모든 감각적 사물들의 수용자 구실을 한다. 모든 실재는 공간 속에 연장되어 있으며 장소 안에 들어 있다는 전통적인 엘레아학파의 교설이 그 추론 과정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어딘가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것이게 된다. 그것은 장소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인가가 모든 감각적 사물들에 대해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그 어떤 것이 바로 공간이라 부르는 바의 것이다. 그것은 어떤 실재성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이데아가 그리하는 것처럼 지성에 그것의 의미를 떠맡기지 않는다. 우리는 꿈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단지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감각적 세계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수용자는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그것 속으로 사람들이 감각적 사물들이라 부르는 이데아들의 반영들이 들어가고 그것으로부터 그것들이 나오는 바의 공간이다. 따라서 플라톤이 그의 우주론에서 밀레토스학파 사상가들의 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사물들이 되는 기본적 물질 또는 원료를 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간은 상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에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분명코 공간적 연장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어머니처럼 돌봐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들 중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데아들은 계속하여 그것들 자체에 있는 것으로, 즉자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것들은 그 밖의 어떤 것인가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수용자 속에 수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들은 공간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본성에 있어서 완전히 형상적이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은 이데아들을 시간적 질서와 공간적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 있는 것으로 그린다. 그것은 이데아들에,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성질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양적인 전 영역 위로 떠오르는 완전히 초감각적인 유형의 존재를 할당한다. 이데아들은 아무런 공간적 특징도 갖지 않는다. 그것들은 구성요소를 이루는 단위들의 면에서 측정될 수 없다. 이데아들을 모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특성들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고립시켰기 때문에, 플라톤은 심지어 수학적 대상의 조건들로부터도 구별되는 참으로 초감각적인 존재의 개념에 도달한 최초의 그리스 사상가였던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는 그런 유형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적

극적이고 한정된 설명도 내놓을 수 없었다.

세 가지 별개의 것들, "존재(*on*)와 공간과 생성"은 따라서 그것들 각각의 방식으로 '천구 이전에', 즉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존재했다(52d). 생성에 기본적인 흙, 공기, 불, 그리고 물은 키질하는 유형의 운동에 의해 처음에는 비례나 척도 없이, 그러나 그 뒤에는 **우주를 형성하기** 위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삼각의 모형들에 따라 그것들의 여러 장소들에 뿌려졌다(52e-56c). 이런 기초가 세워진 다음 『티마이오스』는 인간 신체의 구조와 기능들 뿐 아니라 유형의 사물들의 여러 부류들의 형성과 변화들을 논의하는 데로 나아간다(57c 이하).

우주를 구성함에 있어서 데미우르고스는 '**필연성**', 즉 무질서와 혼돈 속에 머물려는 물체들의 자연적 경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우주의 탄생은 필연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혼합된 것입니다. 정신, 즉 지배하는 힘은 필연성을 설득하여 피조물의 많은 부분을 완성으로 이끌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방식을 좇아 이성의 영향이 필연성의 보다 좋은 것을 얻게 되자 태초에 우주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참으로 말하려면, 그는 방황하는 원인의 다른 영향도 다루어야 합니다"(48a). 그러므로 물체들의 자연적 경향은 멋대로 일하며, 그러므로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방해하는 '방황하는' 원인 노릇을 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지만 완전하게는 극복될 수 없다. 플라톤의 우주에는 항상 비이성적인 어떤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성적 통제를 피하는 요소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비극에 고루 퍼져있듯이 말이다.

Ⅲ

우주에 대한 위에서 말한 이론으로부터 명백하듯이, 감각적 사물들에 대한 **수학적 설명**은 플라톤에 의해 기본적인 삼각 형태들과 기하학적 모형들과 비례들에 따른 작도 속에서 구상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개연적인 추론으로서만 제공되었으며 과학적 논증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우주론의 기초적 개념들은 어떤 관찰이나 실험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측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초적 원소들이 저러한 형태들을 가져야 하고 그것들의 변형들이 기하학적 모형들

과 비례들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그저 억측일 뿐이다. 감각적 사물들의 기초적 양적 특성이 그러한 성격의 것임을 현실적 측정의 어떤 과정에 의해 확립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플라톤에 있어서 감각적 우주에 대한 탐구는 결코 과학의 지위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의 대상, 즉 끊임없이 변하는 감각적 세계 때문에 그것은 의견(*doxa*)이나 믿음의 편에 세워져야지 지식의 편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철저한 수학적 설명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의견의 질서 가운데 남아 있다. 그것은 감각적 사물들에 대한 수학적 비례들과 기하학적 형상의 개연적 적용에만 직면할 뿐이다. 그것은 개연성 이상의 어떤 것도 결코 얻을 수 없다. 플라톤에 의해 윤곽이 그려진 감각적 우주에 대한 탐구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상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것보다 더 개연적인 설명을 내놓는 것이다(48d).

데미우르고스는 플라톤에 있어서 생성되는 모든 것은 유발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실재적 원인으로 의미되었던 것 같이 보인다. 따라서 우주는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요구한다. 데미우르고스가 자주 그저 『티마이오스』의 극적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대화편의 극적 장치 외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데미우르고스를 언급한다(『국가』, Ⅵ, 507c; Ⅷ, 530a; 『소피스트』, 265c; 『정치가』, 270a, 273ab).[4] 그는 마치 그러한 원인이 실제로 가시적 우주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했음을 의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한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난다. 그는 그 원인의 본성을 탐구하는 어떤 수단도 발견하지 못하며,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본성이 쉽사리 말로 소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데아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본성이 거의 가지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공간이 있어야 하듯이, 우주가 있다면 그에 관해서 더한 것이 얘기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의 고안자만큼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데미우르고스는 전능한 것으로 또는 기초적 물질들의 제작자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물질들에[5] 가능한 최선의 질서를 가져오

4) W.D. Ross, *Plato's Theory of Ideas* (Oxford, 1951), 127-128면 참조.

는 선한 장인(匠人)으로서만 그려진다. 이들 물질들은 무질서에로의 그것들의 자연적 경향, 즉 데미우르고스가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플라톤의 공간과 시간의 이론은 이데아들이 완전히 초공간적이고 초시간적임을, 그리하여 가장 충분한 의미에 있어서 초감각적임을 충분히 명료하게 확립한다. 그러나 영혼의 실재성을 이데아들의 실재성과 구별하기 위해 플라톤은 영혼의 본성에, 이데아들에 대해 그려진 것과 같은 실재성과 비통약적인 요소를 도입했다. 영혼의 본성, 심지어 가장 순수한 영혼의 본성의 구성 속으로, 세계 영혼의 구성 속으로 유형의 본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성의 혼합이 들어간다. 영혼은 여전히 수학적 비례들의 면에서 취급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측면이 혼합된 정도에 따라서 영혼들은 구별될 수 있고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 영혼은 결코 스스로 불사적이고 스스로 해체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제작자, 데미우르고스의 의지에 의해서만 불사적이고 해체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유형의 특성들을 분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의 개념은 완전히 영적(靈的)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플라톤적 영혼은 그 자체에 있어서 충분하게 구성된 것이다. 그것은 그저 살아 있는 물체의 생명을 주는 원리만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존재로서 제작되었으며, 그것은 그것만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영혼의 본성은 이데아들과의 지성적 혈족관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성의 질서를 넘어서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개연적 의견들에 의해 탐구되는 것이지 과학적 논증을 통해 탐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적 저술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엄밀한 개념도 기대될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며, 감각적 운동의 원천이며, 그것의 최고의 형식들에 있어서 지성을 소유한다. 그러나 그것의 최고 등급, 즉 세계 영혼에 있어서조차 그것은 그것이 파악되는 부분적으로 양적인 방식 때문에, 그리고 생성되는 그것의 능력과 그것의 자연적 해체 가능성 때문에 참으로 영적인 존재로 간주되기가 어렵다.

5)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 질료나 물질적 원인에 대한 전문용어가 된 'hylē'(나무)라는 말은 플라톤에 의해 『티마이오스』, 69a에서 이런 의미의 전조를 보이는 식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필레보스』, 54c에서 비슷한 의미로 등장한다.

Abstract

Soul and Cosmos in Plato

Hahn, Seok-Whan

1. According to Plato's description, the soul has its own proper existence, independent of that of the body. The soul is regarded as a thing in itself, endowed with existence and life independent of its union with the body. In Plato, however, the soul is represented as something above the whole order of sensible change, even though it is dragged down to that world when it uses the body in sensation.

The kindred region of the soul, accordingly, is the world of stability and being, and not the changing sensible universe. Her proper life is with the Ideas, through knowledge. That life is philosophy. As it is a life led in separation from the body, it is from that viewpoint a death. In this sense philosophy is the pursuit and practice of death (*Phd.*, 64a; cf. 80e). Until the soul is released in this way by philosophy, she is in the body as in a prison. Life in the body prevents in this way the soul from living her own proper life, and only philosophy can release her from that prison. Her true pasturage is found only in the region of the unchangeable Forms (*Phdr.*, 247c-248b). This view quite apparently regards the body as something external to the knowing subject, and merely a receptacle and instrument for the human agent, who is found properly only in the soul.

The soul, moreover, not only survives life in the body, but is in itself immortal and indestructible. The soul should not be dissoluble, like the body. Her kindred with the Ideas, instead of with sensible things, indicates

that she should resemble the Ideas in being indissoluble or almost indissoluble (*Phd.*, 78b-80d). The soul, further, is immortal because her very essence implies life, and so excludes its essential opposite, death (95d-106e).

2. The Platonic arguments have shown that the nature of the intellectual soul demands immortality. They have not definitely established, however, that the immortality is guaranteed to it. That task is left for the more general treatment of the cosmos and the constitution of its various parts.

3. Plato's doctrine of space and time establishes clearly enough that the Ideas are completely superspatial and supertemporal, and so are supersensible in the fullest manner. But in order to distinguish the reality of soul from that of Ideas, Plato introduced into the very nature of soul an element that was incompatible with the kind of reality envisaged for the Ideas. Into the composition of the soul's nature, even in the purest, that of the world soul, there enters a mixture of the otherness that has to do with corporeal nature. The soul can still be treated in terms of mathematical proportions. According to the greater or lesser degree in which this corporeal feature is mixed, can souls be distinguished and graded. The soul is never immortal and indissoluble of itself, but only by the will of its maker, the demiurge. It is viewed, accordingly, as sharing in corporeal char - acteristics. In Plato the conception of soul does not seem to reach an entirely spiritual plane.

The Platonic soul, of course, is a fully constituted thing in itself. It is not just the lifegiving principle of an animate body. It is produced as a complete entity, it comes to be by itself. In this way its nature is not entirely above the order of becoming, in spite of its intellectual kinship with the Ideas. It is investigated, from that viewpoint, by means of probable opinions, and not

through scientific demonstration. No very exact conception of it is to be expected, therefore, in the Platonic writings. It is a self-movent, and the origin of sensible motion, and its highest forms it possesses intelligence. But even in its supreme grade, the world soul, it can hardly be considered a truly spiritual being, on account of the partially quantitative way in which it is conceived and because of its capacity to be generated and its natural dissolubility.